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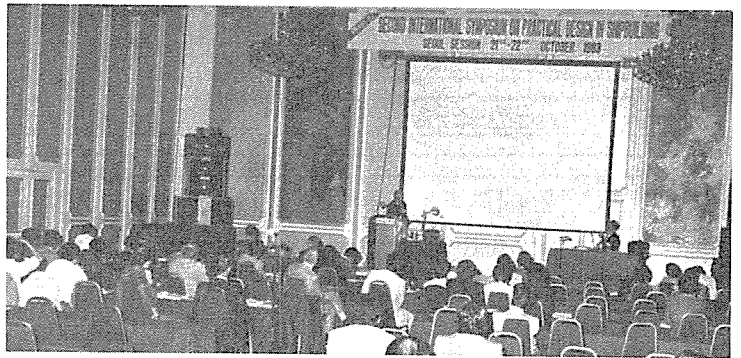
### 大韓造船学会

大韓造船学会(회장 洪性完)는 지난해 평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学会장기발전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학회장기발전계획을 수립, 보다 효율적으로 학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점점 전문화되어가는 학문적 추세를 감안, 「선박유체역학」 등 전문위원회를 구성, 학술활동을 진작시키는 한편 CAD/CAM, Mechatronics 등 첨단기술의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日本 東京大교수인 Hisasi Kajitami 박사를 초청, 국내외 선형시험수조의 시험기법에 관한 기초적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7월 19일부터 27일까지는 日本 强관기술연구소 进 연구소선박성능연구실의 Nari-ta ShooMei 박사를 초청, 국제적 관심사인 극지상황에서의 모형시험기법에 관한 실험법 및 해석법에 관한 최근 동향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産·学·研 분담연구 개발체제에 맞추어 공동연구등을 추진



토록 하는 한편 컴퓨터를 활용, information handling System 을 도입, 凡조선기술인의 정보교환 및 협의의 광장의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조선관련자료 및 교재를 재정비하는 한편 고급조선인력양성에도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学会誌를 지난해 年5회에서 격월로 발간, 회원들의 학술교류의 광장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 韓國品質管理学会

韓國品質管理学会는 구랍 7일 여의도 미원빌딩회의실에서 열린 85년도 정기총회 및 후기 학술연구발표회에서 朴在蔓회장을 취임시키는 한편 부회장 5인가운데 조남호건국대교수·김재주서울대교수·신용백아주대교수·조중원공업표준협회부회장을 취임시키고 박병철쌍용컴퓨터사장을 새로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8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승인하고 8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학술연구발표회에서는 「단순회기분석을 이용한 정규성검정(이창호/인하대 산업공학과교수)」 「A Study on the Bayes Estimator of  $\theta = \Pr(Y < X)$  (염준근/동국대 통계학과 교수)」 「An Elimination Type two-stage selection Procedure for Gamma Population(이승호/아주대 수학과교수)」등이 발표됐다.

### 大韓鉦山学会

大韓鉦山学会(회장 田裕元)는 금년에도 목적사업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한편 鉦業用語의 제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실시할 학술행사로는 오는 4월 12일 「탐사」 「채광」 「선광」 등 3개분야에 대한 춘계학술발표회를 인하대학교에서 개최하고 10월 말경에는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와함께 「광업경영」 「광산지질」 「탐사」 「암반역학」 「채광」 「광산보안」 「선광 및 제련」 등 7개분과위원회별로 전문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日本 광업회 및 中国 광야공정학회의 학술대회에도 대표단을 파견, 국제학술교류를 활발히 진작시킬 예정이다.

## 韓國物理学会

韓國物理学会(회장 金貞欽)는 올해에 제3회 서울국제반도체물리학심포지움을 비롯, 제3차 韓·中 고체물리심포지움등 국제학술행사와 함께 산하 7개지부별 학술발표회, 8개분과별 전문학술새미나등 학술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다.

먼저 오는 8월 서울대학교에서 개최예정인 제3회 서울국제반도체물리학심포지움에는 미국, 일본등 7개국에서 3백여명의 물리학자가 참가. 반도체분야의 최신연구동향 및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에는 1956년과 72년 노벨物理學賞 수상자인 J. Bardeen박사(美 일리노이대교수)가 초청연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독일 Humbolt 재단의 Prof. W. Paul 총재 초청세미나와 美國 Purdue대 김영일교수초청강연회가 同會 원자핵물리학과위원회 주관으로, 제3회 韓·中 고체물리심포지움과 제9회 고체물리심포지움이 고체물리학 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며 제3회 물리교육학술발표회가 물리교육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열리게 된다.

또한 물리학의 보급과 학술발표진작을 위해 봄과 가을에 두차례에 걸쳐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하며 学会誌를 매월(새물리 年6회, JKPS 年4회, 물리교육 年2회), 발간하고 학회회보는 年4회정도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物理學教育개선을 위해 실험물리학교과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대학3, 4학년용 고급실험물리학교과서 발간에 관한 연구·검토와 함께 우수 실험기기 생산업체에 대한 추천업무도 계속 실시할 작정이다.

## 韓國纖維工学会

空氣調和·冷凍工学会는 구랍 6일 韓國科學技術院에서 열린 제14회 정기총회에서 새회장에 崔相弘씨(한일기술연구원대표), 부회장에는 趙星煥씨(육사 교수)와 孫炳鎭씨(한양대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한편 정관 일부도 개정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86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学会誌발간(분기별로 年4회 발간) ▲空調·冷凍·衛生工學편람 발간 ▲학술강연회 및 논문발표회 개최 ▲학술용역사업 ▲외국관련학회와의 상호교류사업등이다.

## 空氣調和·冷凍工学会

韓國纖維工学会(회장 金鎭佑)는 올해에도 목적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會勢확장에도 주력, 학회운영에 내실화를 기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学会의 얼굴인 학회지를 隔月로 발간. 회원들의 학술연구발표의 광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82년도에 既발간된 纖維辭典의 수

정·증보판 준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학술행사로는 4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春·秋季 학술발표회를 총회와 함께 실시하고 8월과 11월에는 「섬유기계의 자동화」와 「섬유기술개발」을 주제로 夏季 및 秋季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국제학술교류의 일환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韓·中 공동심포지움을 오는 2월 대만에서 개최하는 한편 오는 8월 개최되는 하계세미나시에는 합성섬유 가공 및 방직, 에너지절약분야의 권위자인 美國의 Aly Elshiekh교수(North Carolina State Univ.)를 초청, 특별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학회는 특히 8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대학 및 연구소·기업체등지를 순회, Aly교수의 초청세미나도 실시할 작정이다.

## 韓國測地学会

韓國測地学会(회장 安哲浩)는 구랍 7일 서울시립대학에서 85년도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강연회에서는 서울대 이찬교수가 「한국의 고지도」에 대하여 강연을 했고 연구발표회에서는 서울대 안철호교수의 「Landsat MSS Data를 이용한 연안 수리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백은기교수의 「우리나라 천문지도이드에 관한 연구」, 연세대 유복모교수의 「유의성 검정에 의한 오차 모델의 개발에 관한 연구」등 4편이 발표됐다.

性峯 權寧大 박사 永訣式임수

韓國物理学会葬으로



〈權寧大 박사〉

性峯 權寧大 박사 영결식이 구립 27일 흥사단 강당에서 韓國物理学会葬으로 임수됐다.

이날 영결식은 金貞欽 한국물리학회장의 弔辭로 시작, 趙完圭 과총회장과 韓弼淳 한국에너지연구소장 등의 추도사에 이어 분향 및 헌화순으로 진행됐다.

평생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후진양성에 몸 바쳐온 한국 물리학계의 元老인 權寧大 박사는 구립23일 하오 4시30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1908년 경기도 開豊에서 태어난 權 박사는 第一高普를 거쳐 日本 北海道 帝國大學 물리학과를 졸업한후 61년 서울대에서 理學 박사학위를 받았다.

松都中學 교원으로 교육계에 발을 들여 놓은 權 박사는 46년부터 73년 정년퇴임할때까지 27년간 서울대 문리대교수로, (자연과학부장, 이학부장, 문리과대학학장등 역임) 또 60년도부터 10년간은 한국물리학회회장으로 일하면서 국내 物理學의 기반을 다졌다.

權 박사는 최근까지도 에너지연

구소 상임고문 IUGG 한국위원회 위원장, 韓國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고문으로 일해 왔으며 과학기술상(67), 국민훈장 모란장 (7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82년), 대한민국 학술원상 공로상(84)을 받은바 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金世峇 여사(73세)와 1男 5女가 있다.

權寧大 박사의 유해는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동태 1리 선영에 안장됐다.

學生科學教室 운영

科學館, 겨울방학이용

國立科學館(관장 尹永勛)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학생과학교실」과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

과학이론 및 실험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구립24일부터 실시된 「학생과학교실」은 각 중학교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2명 내외의 서울시내 중학교학생을 대상으로 1기당 하루 6시간씩 3일 동안 실시되는데 매기당 80명씩 5주간에 걸쳐 400명을 1월 30일까지 교육시키게 된다.

이 기간중의 강의내용은 「소금물의 전기분해」 「여러가지 결정의 모양과 성질의 관찰」 「별의 색과 온도」 「직류모터만들기」 「용해도와 용해도곡선」 「배는 왜 물에 뜨는가?」 「은거울 만들기」 「야구공

이 커브를 그리는 원리」 등이다.

한편 「컴퓨터교실」은 구립23일부터 6주간에 걸쳐 3회 실시되는데 1회 8일 과정으로 1일 3시간씩 오전반과 오후반(각 130명씩 총 780명)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중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번 컴퓨터교실의 교육내용은 「마이크로컴퓨터입문」 「계산기의 기본회로」 「입력과 출력」 「제어문」 「Basic 언어개요」 「Basic 언어 Programming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金星·三星 등 6개회사의 Personal Computer로 실습한다.

지도교사는 한국과학기술원 석사과정의 대학원생들로 구성되며 교재대를 포함 교육에 드는 모든 비용은 무료이다.

生物工學 단기 강좌

科技院서 개최

韓國科學技術院은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생물공학기술의 원리와 산업적응용」에 관한 특별 단기 집중강좌를 개최한다.

생물공학관련 업체 및 연구소,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KAIST 생물공학과에서 실시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생물세포를 이용하여 유용물질을 효율적으로 생산코자 할 때 産業菌株의 보존 및 육종에서부터 발효를 거쳐 최종산물을 순수정제할때까지 관련된 제반 공정들을 중심으로 그 원리와 응용적인 측면 그리고 그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실제응용사례와 함께 검토하게 된다.

## 性峰 權寧大 박사 逝去를 애도함

### “師弟同行의 큰보람 남기시고...”

多事多亂했던 乙丑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歲暮속에서 갑작스런 先生님의 訃音을 접하니 망연자실 또 다시 人生과 自然의 덧없음과 天理를 痛感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엇그제까지도 매우 健康하신 모습으로 우리나라 科學技術界의 발전과 後學들의 精進奮發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여러모임에 자주 나오셨기 때문에 한 순간 訃音을 의심하기까지 하였읍니다.

先生님은 物理學의 泰斗로서 초창기의 고난과 역경을 마다 않으시고 오직 이 나라 科學技術발전과 後學養成의 큰 사명감 하나만으로 30여년에 걸친 教授職이라는 외길로 시종 하셨습니다.

先生님께서서는 京畿都 開豊에서 태어나 어릴때부터 天才소리를 들으셨을 만큼 영민하여 일찌기 秀才들의 요람이었던 第一高普를 거쳐 日本 北海道 帝國大學 理學部에 유학하여 이 대학의 物理學科 제 1회 졸업생이 되셨습니다.

그후 한동안 日本 굴지의 久遠光學 研究所에서 연구원으로 계셨습니다. 마는 1938년 日帝下의 祖國으로 돌아와 松都中學 교원으로서 당시의 빛나는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를 가르치는 기쁨과 보람을 가장 으뜸가는 덕목으로 삼으셨던 先生님께서서는 또 1945년 해방되던 해에는 37세의 若冠에 開城中學 교장으로 부임하시어 교육자로서의 卓越한 능력을 보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先生님의 가장 큰 보람은 아무래도 해방 이듬해인 1946년 國立서울大學校가 발족되면서 文理科大學 物理科 教授로 발탁되시고 그 이후 1973년 停年退任 하실 때까지의 큰 3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一千여

명의 後學을 길러내시고 우리나라 物理學을 비롯한 基礎科學의 터전을 굳건히 다지신데 있다고 하겠읍니다.

先生님께서 양성하신 제자들의 수효가 一千명에 가까운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는 그중에서도 國內外에서 博士학위를 받은 제자만도 200여명에 달한다는 것은 박사님의 學問의 蘊蓄과 후학들에 대한 깊은 사랑의 鞭撻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韓國人으로서는 큰 키라고 할만큼 훔출하신 용모에 자상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셨읍니다. 마는 학문과 제자들 지도에서는 고집이 세셨고 반면에 自然科學徒로서 자연에 대한 철학적 경건함을 항상 견지하셨던 先生님이었습니다.

### — 기초과학의 터전 굳건히 세워 —

뿐만 아니라 先生님께서서는 과학자로서는 남다르게 哲學과 文學·宗敎學에도 심취되어 自然科學徒가 빠지기 쉬운 論理·合理위주의 경직성을 조화롭게 탈피하시려고 노력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先生님께서서는 自然科學의 到底한 경지에 도달하심으로서 새로운 인간적 경지에로의 超越을 항상 마음속으로 염원하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흔히 과학자는 사회적 활동면에서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世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점에서 先生님은 예외적인 존재셨다고 생각합니다.

先生님께서서는 정년퇴임 후에도 이 나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

간이 허락하시는 한 성심껏 많은 활동과 지도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물론 대학에 계실 때에도 초창기 大學 재건을 위한 東奔西走에 더하여 自然科學部長 理學部長, 大學院長직 무대리 文理科大學長, 韓國物理學會會長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마는 學術院 원로회원으로서 계속적으로 仁荷學院 理事長, 科學技術振興委員, IUGG 韓國委員長, 自然科學協會會長, 韓國科學院 理事, 科學技術情報센터 專門委員長을 지내셨고 엇그제까지도 우리나라 科學技術界의 구심체인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顧問으로써 평생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봉사 하셨습니다.

이러한 功勞로 1963년에 科學技術賞을, 그리고 1973년에는 三一文化

賞과 國民勳章 모란장을 받는 영예를 누리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先生님의 학문적 성과와 高邁한 師弟同行의 보람을 어찌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여기 남아있는 당신의 후학들이 당신의 뜻을 받들어 우리 國家 발전에 커다란 礎石과 支柱가 될것을 굳게 다짐하오니 안심하시고 먼길 편히 떠나시옵소서.

다시 한번 당신의 높은 뜻을 우러러 欽慕하는 우리 後學들을 살펴보고 저승에서도 언제나 따사로운 눈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두손모아 祈願합니다.

先生님, 아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永眠하시어.

1985년 12월 27일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 趙完圭

科總회원단체 '86국제학술행사개최일정

행 사 명	주 관 학 회 명	행사월	장 소	비 고
제 3 회 韓·日 합동 알레르기 심포지움	대한알레르기학회	5 월	광주신양 파크호텔	5 개국에서 3 백여명 참가예정
제 2 회 匪·太 재료강도 학술 회의	한국비파괴검사학회	7 월	서울대학교	7 개국에서 2 백여명 참가예정
제 4 회 국제반도체 물리학 심포 지움	한국물리학회	8 월	서울대학교	7 개국에서 3 백여명 참가예정
국제수리학회 匪·太 지역 학술 회의	한국수문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농공학회· 한국기술사회	8 월	서울쉐라톤 위커힐호텔	20개국에서 5 백여명 참가예정
제 1 회 匪·太 경영과학학술회의	한국경영과학회	4 월	미 정	20개국에서 4 백여명 참가예정
식물생장 조절제와 제초제개발 및 연구의 최신동향에 관한 국제회의	한국잡초학회	10월	농촌진흥청	6 개국에서 210명 참가예정
도시계획의 비교연구 국제학술 회의	대한국토계획학회	미 정	미 정	4 개국에서 5 백여명 참가예정

科總회원단체간 86년도 공동학술회의 개최일정

행 사 명	주 관 학 회 명	행사월	장 소	비 고
공동학술발표회	한국경영과학회· 대한산업공학 회	4 월	한국에너지 연 구 소	
생식내분화에 관한 심포지움	대한불임학회· 대한산부인과학 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남 성과학회	5 월	미 정	
첨단희유금속의 국제적 수급구 조와 국내 자원 잠재성에 관한 세미나	대한지질학회· 대한광산지질 학회	6 월	태 화 빌 디	
韓·日 공동학술심포지움	한국의류학회· 한국섬유공학회	9 월	무 역 회 관	日本 학자 3 명초청
방재과학 워크숍	한국농공학회· 한국수문학회· 대한토목학회	9 월	건국대학교	
한·일 재료공학공동 심포지움	대한금속학회· 한국요업학회	10월	한양대학교	日本 학자 4 명초청
환경오염원의 검출 및 평가에 관한 학술회의	환경성돌연변이 발암원학회·한 국독성학회	11월	국 립 보 건 연 구 원	